

함평군, 빛그린산단 중심 첨단산업 육성... 반도체 허브 도전

교통망·인프라 등 강점 내세워 RE100 시범산단 지정 등 추진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기반 구축



함평군 빛그린국가산단 조감도

/함평군

함평군은 민선 9기 핵심 공약으로 빛그린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AI 기반 첨단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이에 전남 함평군이 미래 산업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함평군에 따르면 빛그린국가산단을 반도체 관련 첨단산업과 제조기업 유치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RE100 산업단지 조성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공급 체계 구축 ▲미래차·AI·반도체 연계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광주·전남권 첨단산업의 중심축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빛그린국가산단은 함평군 월야면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걸쳐 조성된 국가산업단지, 전체 면적은 약 400만 m²다. 이 가운데 함평 지역은 전체 면적의 54.7%인 약 220만m²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 확장성과 대규모 기업 유치 측면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현재 빛그린국가산단에는 금호타이어 등 앵커기업이 입주해 공사를 추진 중이며, 함평군은 이를 기반으로 RE100 시범 산업단지 지정과 추가 산업유치 확보를 통한 100만 평 규모의 산단 확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빛그린국가산단 함평권역은 반도체산업의 핵심 입지 조건인 전력, 용수, 교통, 인력, 정수 여건을 두루 갖춘 최적지로 평가된다.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으로는 태양광·풍력 등을 활용

한 전력 확보가 가능하고, 광역 상수계통과 지역 수자원을 연계한 공업용수 공급 여건도 갖추고 있어 첨단 제조기업 유치에 유리하다.

교통 접근성도 강점이다. 빛그린국가산단은 광주송정역까지 10분대 접근이 가능하고 KTX를 통한 수도권 이동 편의성이 뛰어나며, 무안국제공항, 서해안고속도로, 목포신항 등 주요 광역 교통망과도 연결되어 있다. 또한 광주의 교육·의료·문화·주거 인프라를 함께

활용할 수 있어 기업 임직원의 정주 여건과 생활 편의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인력 확보 측면에서도 한국에너지공대 및 광주·전남권 대학, 연구기관, 산업지원기관과 연계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하다. 함평군은 향후 광주·전남의 연구개발 기반과 연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 공급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함평군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해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산업기반시설 조성, 입주기업 지원 등 제도적 기반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함평군은 대규모 반도체 팹 유치 시 부지매입비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세감면 혜택과 함께 법인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등 세수 일부를 반도체산업 육성기금으로 적당히 향후 팹 증설, 기반시설 확충 등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함평(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경북도

환경해 글로벌 아카데미 '성과'

경북도는 특성화 지방대학(구 글로벌대학) 및 지역 성장 인재 양성 체계(앵커) 핵심사업인 '환경해 글로벌 연합 아카데미'가 전략산업 인재 양성과 재직자 교육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3월 개소한 아카데미는 전략산업 분야 취업 준비 교육과 재직자 역량 강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AI 취업 준비형 교육과정도 신설했다.

최근 3년간 특화인재 507명을 배출해 누적 취업률 72%를 기록했으며, 포스코퓨처엠과 삼성SDS, LG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 등에 인재를 배출했다. /경북=김준하 기자 kih9@

포항시

세계녹색성장포럼 8일 개최

포항시는 7월 8일부터 10일까지 라한호텔 포항에서 '2026 세계녹색성장포럼(WGGF 2026)'을 개최한다.

'경계를 넘어, 새로운 녹색 미래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후안 베르데 알라모 홀딩그룹 창립자 겸 회장, 짐 스키 IPCC 의장, 이희성 CF연합 회장, 김상협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사무총장, 아비아야 칼 회의 크누센 북극경제이사회(AEC) 의장, 웬용강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교 교수,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등이 참석해 녹색 성장과 산업 전환 방안을 논의한다. /포항=김진권 기자 jingon@

전북도

함경남도지사에 진봉현 변호사

전북 출신 법조인 진봉현 변호사(사진)가 차관급 직위인 함경남도지사에 임명되며 지역 사회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정부는 최근 신규 함경남도지사에 전북 지역에서 활동해 온 진봉현 변호사를 임명했다. 전북 출신 인사가 이복5도 위원회 소속 도지사를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역 법조계에서도 의미 있는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진 신임 지사는 오랜 기간 전북에서 법조인으로 활동하며 공정한 법률 서비스와 지역 사회 발전에 힘써 왔다. /전주(전북)=조계철 기자 chonho89@

경산시

대구한의대한방병원과 의료협약

경산시는 지난 30일 대구한의대한방병원과 의료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산시민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36년 6월 30일까지 10년간 대구한의대한방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비와 건강검진비를 15% 감면받는다. 감면 대상은 외래·입원 진료비와 약제비의 비급여 본인부담금, 종합건강검진비다.

경산시는 대학이 보유한 의료 역량을 시민 복지에 활용하고, 글로벌대학 사업과 연계한 지역 상생협력 모델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산(경북)=김진권 기자

충남도, 도시재생 공모 3곳 모두 선정

2개 시·군 3개 대상지 308억 확보 원도심 활성화·정주여건 개선

충남도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신청한 2개 시·군 3개 대상지가 모두 선정되며 국비 308억 원을 확보했다.

충남도는 1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대상지로 천안시 성정지구와 예산군 산성지구가, 인정사업 대상지로 천안시 성황동이 각각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확보한 총사업비는 697억 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국비는 308억 원이다. 도는 내년부터 원도심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

할 계획이다.

천안시 성정지구에는 총 257억 원을 투입해 도시계획도로와 보행로를 신설·정비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공원, 주차타워를 조성한다. 주택정비 지원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예산군 산성지구에는 251억 원을 들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주민 커뮤니티 복합시설과 공원, 주차타워를 조성한다. 빈집 정비사업도 함께 추진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인정사업으로 선정된 천안시 성황동에는 189억 원을 투입해 시니어 헬스케어시설과 오픈스페이스, 주민커뮤니티시설, 순환형 공공임대주택, 주차장 등을 조성한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

부산시, '2030 APCOT' 개최지 선정

16년 만에 국내서 열려

2030년 아시아·태평양전도체·마이크로노기술 국제대회(APCOT)가 부산에서 열린다.

부산시는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대만 타이중에서 개최된 '제12회 APCOT 2026'에서 제14회 대회 개최지로 부산이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APCOT(Asia-Pacific Conference on Transducers and Micro-Nano Technology)은 센서, MEMS, 반도체, 마이크로노기술 분야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 공동 연구와 산업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2년마다 열리는 학술대회다.

/부산=이도식 기자

울산 강동해변, 야경 명소 '탈바꿈'

몽돌광장·산책로 조성

울산시는 북구 강동해변에 파도소리를 들으며 색다른 야간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해안공원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154억원이며 지난 2024년 12월 착공해 약 1년 6개월 만에 준공됐다. 7월부터 시민에게 공개한다.

시는 산책로를 당초 계획보다 90m 연장해 총 650m로 확장하고 출입 계단과 사면을 정비해 이용 편의와 접근성을 높였다. 또 누구나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무장애 계단형 스탠드를 설치했다.

산책로 끝에는 공연과 휴식·놀이 공간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몽돌광장을 조성했다. 고래 형상의 전망 공간(고래광장)도 조성해 동해안의 일출과 일몰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색다른 야간 경관을 즐길 수 있



울산 강동해안공원

도록 해안산책로 바닥에 낮 동안 태양광을 흡수한 뒤 밤에 빛을 내는 축광식으로 포장해 마치 은하수 길을 걷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새로운 사진 촬영 명소이자 야간 경관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안공원 조성에 맞춰 관광 기반시설 확충도 추진된다. 약 20억원을 들여 연면적 273m² 규모의 '여행자안내센터(트래블라운지)'를 신축할 예정이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남도, 7월 11일 '관광의 날' 제정

2주간 관광주간 운영

경남도가 7월 11일을 '경상남도 관광의 날'로 공식 제정하고, 오는 7월 10일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제1회 기념식을 연다. 7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은 '경남관광주간'도 운영한다.

관광의 날은 지난해 7월 11일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인 국도 5호선 사업이 확정된 것을 기념해 지정됐다.

해당 사업은 통영시 도남동에서 남해군 창선면까지 152km 구간을 연결하는 총사업비 2조 4650억 원 규모의 대형 해상 교통망 구축 사업으로, 거제·통영·사천·남해를 하나의 해양관광 벨트로 묶는 게 골자다. 경남도는 올해 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상남도 관광의 날 이미지. /경상남도

경남 관광은 양적·질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관광데이터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 방문객은 전년 대비 약 945만 명 늘어난 1억6668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5월 누적 기준 내국인 관광 소비액이 2조 6255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6% 증가했고, 외국인 방문객은 400만명으로 25.4% 늘었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